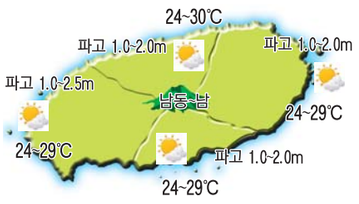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0일 화요일 음 8월 12일 (4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모처럼 비가 그치고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전 지역에서 24℃로 시작하고 낮 최고 기온은 29~3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6:13 / 해짐 18:48	달뜸 16:48 / 달짐 02:20
물때	만조 08:34 / 21:38	간조 03:24 / 14:55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5/30℃
모레	구름 많음	24/28℃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위험	높음

월드뉴스

"작년 북한 찾은 외국인관광객 20만명"

관광산업 급격한 성장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9일 빠르게 발전하는 북한의 관광산업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올해 국제열차로 평양에 도착하는 여행객이 대폭 늘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춘제(중국의 설) 이후 중국 단둥에서 평양을 향하는 열차는 표를 구하기 어려우며 평양역 주차장은 관광버스로 매일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월 막을 올린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유명 관광지 외에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관광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했다.

신문은 북한 측 통계를 인용해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20만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평양공항의 현대화와 마식령 스키장 건설로 관광산업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인민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한 내용도 언급했다.

더불어 신문은 북한에 해안과 강, 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사계절이 분명하고 기후가 좋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평양, 금강산, 묘향산, 개성, 남포 등 9개 관광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삼지연, 원산 갈마 해안, 양덕온천 등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도시의 랜드마크

선 은 수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건축사

도시 중심의 아름다운 랜드마크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의 모습은 그 도시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랜드마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대중 또는 방문객에게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파리로 대변되는 에펠탑과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등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은 그 도시의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를 기억하는 인지적 지표가 되며,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연스러운 동경심을 유발한다.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랜드마크와 같은 상징적 건축물은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 및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와 맞닿아 있으며, 수많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매력적 공간 및 이미지를 제공한다.

최근 신제주에는 누구에게나 한눈에 들어오는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이 건축물은 드림타워라는 이름으로 수년째 공사를 진행해 왔고 현재는 막바지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드림타워는 복합리조트 프로그램으로 신제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에 들어서는 제주 역사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스케일의 건축물이다. 그동안 스케일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위용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새삼 그 거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난 2007년 확정 발표한 '2025년 제주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민선 4기 도정에서 2009년에 56층, 218m의 높이로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그 규모는 한때 서울의 랜드마크였던 63빌딩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의 건축물로 계획됐지만, 그 규모를 실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후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통해 56층을 38층으로, 218m를 169m로 조정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높이를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고 건축물 면적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필자는 지난 과정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은 싫든 좋든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돼버렸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랜드마크로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드림타워는 우리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랑할 만한 건축물인가. 필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의 모습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서 있는 폭력적인 스케일의 전형적인 상업건축물일 뿐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건축을 이야기해오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아버렸고 공론화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높이를 낮추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주장했다.

우리가 조금만 심사숙고했다면 사업주로부터 세계적인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만들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 있는 건축물로서 우리 도시의 활력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지금이라도 야간경관 등과 같은 추후 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열린마당

제12회 제주해녀축제, 세계를 향한 열정

윤 영 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정책팀장

해녀는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의 정신이고, 제주의 표상이다.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인 '해녀문화'를 보존 및 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녀축제가 시작됐다.

올해는 제2회 '해녀의 날'과 연계한 '제12회 해녀축제'가 '어머니의 숨비소리, 세계의 가슴 속에'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구좌읍 해녀박물관과 하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녀, 도민, 관광객 등의 자율적인 참여로 열린다.

2018년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해녀의 날' 기념식과 해녀 축제를 새롭게 구성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4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으로 공연, 전시, 경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를 '해녀문화 주간'으로 정해 도내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해녀문화 공연 및 전시행사 등이 도내 전시실 등에서 열리고, 축제 전날인 9월 2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출향해녀와 제주해녀가 함께하고, 해녀 전문가, 교수 등과 해녀삼촌들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해녀어업 보존·발전 포럼 및 전국해녀 교류행사'가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해녀동아리 공연,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공연·전시와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행사도 준비했다.

올해 해녀축제의 목표가 '해녀의 자긍심 고취, 해녀문화의 가치의 세계화'로 정한만큼 제주해녀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이어 2020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으로,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이 되길 소망한다.

시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치

고 준 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자치과

복잡 다원화 돼 가는 현대사회의 흐름은 어제와 오늘의 유행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옛 선조들의 말씀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하지만 나는 전 세대를 아울러 관통하는 공직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청렴'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다. '황금의 보기를 돌같이 하라'. 혹자는 이 말을 듣고 식상하고 진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식상하고 진부한 것은 조금만 달리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야기해왔다는 반증이 된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청렴했던 사람과 청렴하지 못했던 사람은 역사가 판단을 내려왔다. 한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황희 정승'과 '최영 장군'은 현대까지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으며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으나, 청렴하지 못했던 탐관오리 '조병갑'과 같은 사람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국민에 의해 쫓겨 났으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많은 이들의 질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의 흐름은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에 대한 질타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일을 진행해가는 우리 조직 전체의 누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놓여있다. 청렴하게 근무하여 '황희 정승, 최영 장군'과 같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조병갑'과 같이 100년이 지나서도 후대의 질타를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제주도정 소식

추석 연휴 기간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추석 연휴 불편사항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도청 종합상황실(☎064-710-6832) 또는 제주 120 만덕콜센터를 통해 민원 접수

재외제주인 동력결집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2019 세계제주인대회
▶ 사전등록 신청기간 : 2019. 9. 2.(월) ~ 9. 20.(금)
▶ 사전등록 신청방법 : 세계제주인대회 홈페이지 개별 등록(www.globaljejuin.com)
▶문의 :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064-753-1240)
○ 2019. 10. 12.(토) ~ 10. 14.(월)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 참가규모 : 국내외 재외제주인, 도민 등 1,000여명
○ 주제 : 더 커지는 제주, 글로벌 제주인 하나 되다!
○ 문의 :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064-753-1240)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행사 안내
○ 기간 : 2019. 9. 20.(금) ~ 9. 21.(토) / 2일간
○ 장소 :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일원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 행사내용
• (개막행사) 문화공연, 안전실천 유공자 표창, 안전관련 퍼포먼스
• (안전체험) 6개 분야 70개 안전체험부스 운영
• (경연대회) 응급처치, 소소심, 청소년 댄스 경연, 문화행사 등
※ 안전체험 참가자 각종 기념품 등 증정
○ 행사문의 :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710-3532)

2019년도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재공고(3차)
○ 신청기간 : 2019. 9. 5. ~ 9. 11.(공휴일 제외)
- 서귀포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단체인 경우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문의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064-760-2243)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참조하세요

제주시정 소식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제주) 젊은 그림 공모전」
○ 공모구분 :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 및 고학년(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공모내용 :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제주)」 주제로 한 상상화 및 풍경화 등
○ 공모분야 : 수채화, 유화, 펜화 등 장르 구분 없음 * 컴퓨터 그림 제외
○ 작품규격 : A5(148×210) 200g이상
○ 우수작 시상 :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제주시장상 등
○ 접수기간 : 2019. 9. 2. ~ 9. 20. 18:00까지
○ 문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064-728-1421~4) / 문화의 달 공식 홈페이지((www.culturemoon.com)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합동 창작 - 느영나영, 문화바람」작품 아이디어 및 참여단체 모집
○ 모집내용 : 철성로 아케이드 상층부를 활용한 설치 창작 작품 아이디어 + 작품제작 및 설치
○ 선정자 특전 : 작품 제작비 및 설치비, 보상금 별도 지급
○ 접수기간 : 2019. 9. 2. ~ 9. 20. 18:00까지
○ 문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064-728-1421~4) / 문화의 달 공식 홈페이지((www.culturemoon.com)

올 해의 책! 한판 승부! 독서 골든벨 참여가족 모집
○ 참가자모집 : 2019. 9. 4.(수) ~ 9. 20.(금)
○ 골든벨일시 : 2019. 9. 29.(일) 10:00 ~ 12:00
○ 장소 : 사라봉 메인무대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자녀포함 30가족
○ 운영내용
- 올해의 책 선정 도서를 읽고 독서퀴즈 골든벨 등
- 〈강판권, 나무철학〉, 〈손원평, 아몬드〉, 〈송재찬, 홍다미는 싸움닭〉
○ 참가방법 :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 시상 : 제주시장상 6가족(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등)
○ 문의 : 우당도서관 열람팀 ☎728-8344, 8343)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19. 9. 4.(수) ~ 9. 16.(월) [13일간]
○ 조사기간 : 2019. 11. 6.(수) ~ 11. 25.(월) [20일간]
○ 모집인원 : 120명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주민자치담당)
○ 합격자 발표 : 2019. 9. 27(금) 이후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및 개인 통보(SMS)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제주시 총무과(☎728-2093) 및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정 소식

'꿈을 job多!' 2019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알림
○ 축제기간 : 2019. 9. 19(목) ~ 9. 21(토) 09:00~16:00
※ 개막식 : 2019. 9. 19(목) 13:00
○ 축제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 참여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등
○ 주관/주최 :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 축제내용
- 공연 : 학교별 방과 후 활동 공연
- 강연 : 전문가 진로특강 ※연예인 특강(송은이, 정상훈, 김민교 등)
- 체험 :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
○ 행사문의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760-3832)

제25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지역 문화동아리 경연 참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 9. 4(수) 09:00 ~ 9. 18(수) 17:00 / 선착순
○ 신청대상 :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영(활동) 중인 문화동아리 / 총 12개 팀
- 읍・면・동별 2개 팀 이내(청소년 팀 가능) / 1개 팀별 20인 이내
○ 참가분야 : 댄스, 전통무용, 민요, 악기연주(통기타, 우쿨렐레) 등 무대 공연이 가능한 프로그램
○ 공연방법
- 공연시간 : 팀별 5분 이내(시간 엄수)
- 발표에 필요한 소품 일체 및 음악파일 등 자체 준비
○ 참가접수 : 이메일(gimsh0732@gmail.com) 접수
※ 2019. 9. 19(목) 일괄 유선 통보
○ 경연일시 : 2019. 9. 28(토) 18:00~20:00 (120분)
○ 경연장소 : 서귀포칠십리축제(자구리공원) 내 특설무대
○ 참가문의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760-3946)

서귀포시 아이돌보미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2019. 9. 2(월) ~ 9. 20(금)
○ 모집대상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모집인원 : 10명
○ 활동내용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등
○ 신청방법 : 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보육교사 등 관련자격증 사본 등
○ 양성교육 : 서류심사 및 면접 통과자
- 교육기간 : 2019. 10. 21(월) ~ 11. 1(금) / 총 80시간
- 교육장소 : 제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
- 교 육 비 : 20만원 (교육 이수 후 의무 활동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양성교육(8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760-6482, 6484)

주간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산남지역 착과량이 많아 열매솎기 실천 고품질감귤 생산**
○ 착과량이 많은 나무, 소과, 중결점과 중심 열매솎기 실시
○ 귤응애, 검은점무늬병, 총채벌레, 노린재 등 병해충 방제
○ 토양피복재배는 품질 검사 후 8° Bx 이상 되면 관수를 실시하고 소과, 중결점과 위주로 열매솎기 실시

□ **만감류: 환기철저, 물관리, 병해충방제 등**
○ 하우스내 온도 상승 억제하고 주・야간 온도를 자연온도에 맞춰 관리
○ 5~7일 간격으로 15~20톤 정도 관수를 하되 토양특성(물빠짐, 토심 등)에 따라 관수 간격 및 관수량 결정
○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품질조사(당도, 산함량) 실시
○ 귤응애, 진딧물, 총채벌레 등 병해충 방제
○ 부피 및 수부증 경감을 위해 칼슘제 20~30일 간격 3회 엽면시비

□ **키위: 과즙이 축적되는 시기로 토양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
○ 여름순은 발생 즉시 제거
○ 연부병, 깍지벌레 등 병해충 방제

□ **월동무, 마늘, 감자: 적기 파종**
○ 파종이 이뤄진 포장에서 침수 발생 배수로 정비와 물빼는 작업 실시
○ 집중호우로 침수 및 유실피해 발생이 심한 포장은 재파종

□ **당근: 태풍이 지난 후 역병, 무름병 등 병해충 방제**

□ **양배추: 정식 지연 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요소 등 엽면시비**
○ 태풍이 지난 후 침수 및 바람 피해가 예상되므로 무름병 등 병해충 방제와 피해가 심한 곳은 재정식

□ **브로콜리: 정식 지연 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요소 등 엽면시비**
○ 육묘 하우스 환기를 철저히 하여 고온과 습해 피해 예방

□ **양파: 노지육묘는 반드시 육묘상 소독 후 파종**
○ 암발아성이므로 파종 후 2~3일 육묘상자를 쌓아 놓거나 차광망 피복

□ **콩: 불마름병, 노린재, 콩잎말이나방 등 병해충 방제**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52)